

지역 소식통



정읍시농업기술센터 병해충 발생 종합방제 당부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계속되는 잦은 강우로 인하여 벼농사 후기 병해충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병해충 종합방제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출수가에 잦은 강우로 인한 다양한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삭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세균벼알마름병, 흑명나방, 벼멸구 등을 출수가 전·후하여 종합방제를 철저히 해야한다.

병해충 예방적 결과로는 비래 및 돌발해충 발생은 미미하나, 8월 들어 비가 자주오고 있어 비료를 많이 준 논 위주로 잎집무늬마름병의 발생이 늘고 있다. 또한 세균벼알마름병은 출수가에 2일 이상 강우시 발생량이 많아지며 병 발생시 수확량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비오는 날이 계속될 경우 후기 병해충 발생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을 이용하여 병해충 방제를 하여야 한다. 또한 보급종 채종농가와 채종할 계획이 있는 농가는 키다리병 포자가 출수가에 화기(벼꽃)를 통해 전염되므로 잎집무늬마름병 방제를 겸해 약제를 반드시 출수 전·후에 2회 살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산림조합, 조합원 가입 우수 기관 선정

부안군산림조합이 16일 조합원 가입 우수조합으로 선정되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삼금과 트로피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부안 산림조합은 상반기에 상호금융활성화 우수조합으로 선정되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3회에 걸쳐 인센티브를 받았다.

오세준조합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산주와 임업인을 위한 조직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는 조합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2023 세계잼버리 유치 확정'

새만금 글로벌 발판 마련

김종규 부안군수, 10개국 관계자 개별 면담 등 노력 결실

김종규 부안군수가 2023 세계잼버리 최종 개최지가 선정되는 제41차 세계스카우트 총회 개최 이전에 현지로 출국해 10여 개국 관계자를 개별 면담하는 등 부안 새만금 유치를 위한 노력을 쏟아 왔다.

김종규 군수 등은 지난 14일 열린 제41차 세계스카우트 총회 이전인 11일 아제르바이잔으로 출국해 2023 세계잼버리 부안 새만금 유치를 위한 막바지 홍보활동을 펼쳤다.

미리 출국한 김종규 군수는 가나와 케냐 오만 태국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아르바 등 총회 참가국 10여 개국을 개별 면담하고 부안 새만금 확정을 위한 막판 표심잡기에 집중했다.

특히 김종규 군수는 총회 개최 전 이미 해당 국가들을 차례로 방문해 스카우트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부안 새만금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낸 상황에서 최종 표심을 다졌다.

이어 한국리셉션과 국제의 밤 제41차 세계스카우트 총회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하면서 부안 새만금에 대한 지지를 진정성 있게 호소해 최종 확정의 기쁨을 누렸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2023 세계잼버리 부안 새만금 개최 확정에 진심으로 기쁘다. 부안군민 모두가 하나 돼 염원



했기에 가능한 한 일"이라며 "성공 개최를 위해 안전하고 완벽한 시설준비와 편의지원에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를 다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를 다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를 다하고 있다."

부안 새만금은 지난 16일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된 제41차 세계스카우트 총회에서 2023 세계잼버리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 8월 1~12일까지 12일 간 부안 새만금 관광 레저 용지 1지구에서 전세계 168개국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2023

세계잼버리가 개최될 예정이다.

2023 세계잼버리는 생산유발효과 79.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93억원, 고용유발 1054명 등 천문학적 경제유발효과와 함께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로 투자유치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전 세계 5만여 명의 청소년 및 스카우트 지도자 등이 참여하는 만큼 한국에 대한인지도 제고 및 미래 친한(親韓) 인사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부안=이옥수기자

부안소방서, 세계 잼버리 대회 준비 만전

2023 새만금 잼버리 유치소식에 부안소방서가 부안군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만큼 가장 안전한 잼버리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강동일 부안소방서장은 "전북도의

연원인 2023 세계 잼버리 대회가 부안군에서 개최된다.

청소년들이 도전과 개척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한 대회가 되도록 민전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군, 살충제 계란 관련 산란계농장 전수검사

13농가 중 11농가 검사완료... 군 "주의 기울여 관리할 것"

농림수산식품부가 친환경 산란계농장을 대상으로 정기검사 중 경기도 남양주 소재 농가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되어, 지난 15일 0시부터 모든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지시키고 전국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살충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고창군도 식용란을 생산하는 산란계농장 15농가 75만7000수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살충제 성분 검사를 진행해 13농가 중 11농가는 검사완료(살충제 성분 미검출)하고 2농가는 검사 중이다.

살충제 성분검사 후 적합농장은 검사증명서 발급 후 계란유통을 허용하고 부적합 농장이 나올 경우 2주 간격으로 추가검사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을지연습 21일부터 24일까지 실시

정읍시가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2017년 을지연습'이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3박 4일) 전국 동시에 실시된다고 밝혔다.

연습의 중점은 국지도발 대응능력 강화 및 전진전환 절차 숙달과 발생원점에서 민·관·군경 통합 초동조치 절차 숙달, 사이버 테러 대응훈련 강화, 대국민 안보의식 고취 등이다.

연습 첫날 을지2중 사태가 발령되면 시는 즉시 전 공무원의 비상소집과 전진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전진 직제관실과 행정기관 소산·이동훈련이 진행된다.

또한 을지연습과 연계 실시되는 제40차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은 오는 23일 오후 2시를 기해 20분간 실시되며, 시기동 산하그린아파트의 장사정포 공격에 따른 주민대피 훈련과 수성부영1차아파트 교차로, 학산중교교앞 호남중 교교앞 교차로 등 3개

소에서 각 동 주민센터 주관으로 내 주변 대피소 찾기 훈련이 시범훈련으로 전개된다.

특히, 적의 공격 상황을 현장감 있게 연출하기 위해 사용 될 폭염탄 공포탄, 연막탄 사용 시 주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훈련기간 중 거동수상자 신고는 국번 없이 1388로 신고를 당부했다.

또한, 이번 훈련기간 중에는 을지프리덤 가디언(UFG) 훈련이 한·미연합군 합동 군사훈련으로 육·해상에서 펼쳐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의 안보역량이 적보다 강할 때 평화가 유지되고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며, "을지연습의 철저한 준비와 시행으로 지역방위를 한층 강화하고 민·관·군경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을지연습 준비상황 최종 확인·점검

고창군이 성공적인 '2017 을지연습' 수행을 위한 준비상황 보고회와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와 협의회는 17일 박우정 군수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과 실과소 실무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4일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을지연습을 앞두고 각 부서별 준비상황을 최종 확인·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이번 을지연습이 생활밀착형 주민체합 훈련과 생활안전 교육 등 주민의 위기대응능력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이며 현장감 넘치는 훈련이 이뤄지도록 각 기관간 협조체계를 긴밀하게 구축하

는 방안과 각종 전시사태별 조치사항 및 지난 해 훈련 시 나타났던 문제점 보완 등을 논의했다.

통합방위협의회장인 박우정 군수는 "최근 북한 미사일 위협에 따라 어느 때 보다 국가 안보가 중요한 시점에 범정부적 훈련을 실시하는 만큼, 민·관·군이 협조체제를 공고히 해 실천처럼 준비되어야 한다"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든든하게 보호하기 위해 통합방위체제와 역량을 튼튼하게 다지는 것은 물론, 훈련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음식관광활성화 사업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정읍시는 17일 보건소 4층 회의실에서 2017년 정읍시 음식관광활성화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를 열었다.

본 연구용역은 2016년(1차년도)에 정읍시 대표음식인 단풍미라 3종인 귀리떡갈비, 생화차묵은지삼합, 사과맥적 개발에 이어 대표음식이 자리 잡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질적인 향상이 요구되고 대표음식의 기술적 보완과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2016년에 대표음식 개발에 참여한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단풍미라 대표음식전문점 정읍맛집 육성 및 활성화 방안 구축, 정읍 식재료를 활용한 부식상품 매뉴얼 개발 단풍미라 서비스 인증제 확립 등을 과업내

용으로 6월에 용역을 체결하였다.

보고회는 대표음식전문점영양주, 정읍맛집영양주,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수인교수의 1차년도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음식관광활성화사업 관련 진행 전반 및 정읍 식재료를 활용한 부식상품 매뉴얼 개발에 배정 발표를 시작으로 부식상품 매뉴 시식 및 품평, 선호도 조사 순으로 진행하였다.

보고회에 선보인 부식상품 매뉴대표 음식 후보군은 총 11종으로 대표음식 3종과 결맞는 부식상품 5종을 최종 선정하여 대표음식전문점 5개소와 맛집 17개소 대상으로 전수 교육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an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뽕이 곱게 어울려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 SET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세 | 750ml 1ea/12%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세 | 375ml 5ea/13%

GIFT SET 6세 | 500ml 참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94-8990
www.gansanwine.com